순찰차에서 사랑 나눈 경찰 커플

▲ 사진=twitter(JR Sánchez)

근무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랑' 을 나눈 현직 경찰 커플이 중징계를 당했다.

멕시코 멕시코주의 에카테페크에서는 최근 경찰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던 경찰 커플이 한 시민에게 목격됐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방심했는지 두 사람은 자동차의 문까지 활짝 열어둔 채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행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 탓에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오가는 사람이 없는 곳에 순찰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본 한 청년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차에 다가갔고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목격한 것이다. 이 청년은 경찰 커플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그러자 에카테페크는 발칵 뒤집혔고 경찰은 두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에카테페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불안이 특히 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EGI)가 지난 6월 발표한 공공안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에카테페크는 프레스니요, 칸쿤 등과 함께 멕시코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불안이 가장 심각한 도시다. 이들 도시에서 설문에 응한 18세 이상 응답자의 66%는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 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멕시코 누리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근무시간에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 "오늘날 멕시코 치안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를 알겠다." 는 등 경찰에 비판을 퍼붓고 있다.

고객이 남긴 쪽지에 눈물 흘린 종업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 여성이 SNS에 공유한 사진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21일 식당 종업원 메건 킹은 자신의 SNS에 두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하나는 그녀가 팁과 함께 받는 쪽지 사진, 다른 하나는 쪽지를 읽은 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속 쪽지에는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드린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외식했다. 난 이를 극복하길 바랬다' 고 쓰여 있다.

킹은 "쪽지는 지난 18일 받았다." 면서 "그녀(쪽지를 남긴 고객)는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일요일에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사를 절반쯤 했을 때 먹는 속도가 느려져 보여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걸었다." 고 설명했다.
킹은 "몇 분 동안 얘기를 나눴다. 너무 깊지 않은 잡담이었다." 면서 "그녀는 자신이 거의 70세여서 먹는 속도가 느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오래 먹고 싶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 사진=twitter(mark@jansprtnyc)

이후 다른 고객들의 주문을 받으러 갔던 킹은 그 여성이 식당을 나간 뒤 테이블 위에 팁과 함께 놔둔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를 본 킹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흐르는 바람에 바쁜 와중에도 화장실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킹의 SNS에 "슬프면서도 아름답다." 면서 "쪽지를 쓴 사람을 안아주고 싶다." 는 글을 남겼다.

원숭이 패싸움에 도심 교통 마비

원숭이들이 패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태국 중남부 롭부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 사진=news.trueid.net

이날 롭부리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두 원숭이 패거리가 맞붙었다. 서로를 노려보며 한참을 대치하던 원숭이 수백 마리는 급기야 도로를 점거하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도로 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렸지만 원숭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전쟁을 이어갔다. 그 바람에 교통은 마비됐고, 멈춰선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원숭이들의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한 목격자는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다친 원숭이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었다. 여러 마리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면서 "다만 원숭이들이 차량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고 전했다.

두 원숭이 패거리는 지난해 3월 한 차례 패싸움을 벌인 원숭이들로 추정된다. 비교적 먹이를 구하기 쉬운 관광명소인 사원 구역 '사원 원숭이' 패거리와 버려진 영화관 건물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영화관 원숭이' 는 당시에도 도로를 점거하고 패싸움을 벌이며 교통을 마비시켰다.

원숭이들이 패싸움을 벌인 이유는 먹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원숭이 도시' 롭부리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원숭이들이 민가를 습격해 음식을 강탈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롭부리에서는 원숭이들이 인가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쳐 가기도 하는 등 원숭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